

# 북한 연구의 위기와 차세대 연구자들의 과제

최지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choijy@kinu.or.kr

## 1. 들어가며

북한 연구가 위기이다, 분단 인더스트리가 붕괴되고 있다,<sup>1)</sup>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요즘이다. 북한 연구가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와 완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층 다르다. 위기의식을 넘어, 실제 위기로 나타나고도 있다. 북한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연구자 수가 크게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 북한 연구가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리고 연구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축소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줄어드는 데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해당 연구의 사회적 기여가 더 이상 크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북한 연구는 어떤가? 그 소임을 다하고 이제 사라질 때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고, 연구 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북한경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두서없이 던지고 답하기 위한 것이다.

1) 김성경, 「통일부 축소는 한반도 '분단 인더스트리' 파괴 선언」, 한겨레, 2023. 8. 16.

## II. 북한경제 연구의 사회적 기여

북한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은 과연 무시할 만한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은 저마다 북한, 통일 문제에 한 마디는 보탬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비단, 남북 관계,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핵무기와 연관된 북한 이슈는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국제적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면, 북한 연구는 사회적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고 있을까? 북한 연구는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을 일반 국민, 정책 결정자, 해외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 왔다.

북한경제 연구는 어떠한가? 북한경제 연구는 북한 경제위기의 기원을 설명하고, 경제개혁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내면서 외부 세계의 관심사인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0년대 초중반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고립되기 시작한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했을 때,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경제위기의 기원이 무엇이었고,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sup>2)</sup>를 밝혀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2000년대 북한이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시도했을 때는 어떤가? 북한의 정책 전환을 체제 전환과 연관 지으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당시 7.1 조치를 포함한 정책들이 ‘아래로부터 시장화’, ‘자생적 시장화’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당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체제 내 개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sup>3)</sup> 제한적 경제개혁 이후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상호 의존하며, 경제의 각 부문이 불균등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관찰도 이루어졌다.<sup>4)</sup> 우리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 베트남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북한이라는 하나의 국민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흡하나마 설명할 수

2)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계에 관한 연구 (1956~1964)」,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비교경제연구, 11(1), 2004, pp.139~188.

3)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통일연구원, 2005; 김영윤,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 부문 기대효과와 과제」, 통일문제연구, 15(2), 2003, pp.147~169;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44(2), 2005, pp.25~54;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선인, 2004;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3), 2006, pp.7~43.

4) 이석기·김석진·김계환·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 방식」, 산업연구원, 2010;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있는 것은 국책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연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특히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 결정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북한 연구는, 그리고 북한경제 연구는 왜 위기에 직면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연구자들의 협업에 기반한 북한경제 모니터링은 비교적 충실히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경제의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변화의 동인에 대한 질문은 예전에 비해 약화된 것 같다. 필자가 석사,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읽었던 선배 연구자들의 글들은 북한경제 위기의 근원과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들이었다. 필자를 비롯한, 그다음 세대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북한 연구 전반의 위기가 이미 전면화되었다면, 사실 그 위기를 가장 오래 마주할 사람들은 차세대 연구자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 III. 차세대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과제

선배 연구자들이 이루어 낸 성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세대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질문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담한 질문이 필요하다. 사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크게 부정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분석을 보태어 결론을 내리는 연구가 가장 쉽고 안전하다. 이렇게 안전한 연구는 비판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새로운 통찰을 주기 쉽지 않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북한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담한 질문, 전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경제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공존하고 갈등하면서 매우 특이한 구조로 변화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희미하게 짐작만 하고 있을 뿐, 이것이 북한경제의 성장, 불평등,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전환에 대한 해석이나 대응도 아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강화 조치의 배경과 성패, 국가 판매 실시의 의미와 파급효과,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따른 남북경협 의 향방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논의의 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활성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요한 것의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된다.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그러나 연구라는 일의 좋은 점은, 내가 틀리면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건강한 경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읽고 평가하는 노력, 진지한 피어 리뷰(peer review)가 필요하다. 지구로 돌진하는 해성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가 정치, 경제, 언론 등 사회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좌절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 Don't look up에서 지구 멸망을 막지 못한 결정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과학자들 간의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은 기술이 자본과 결탁한 정치에 의해 선택된 것이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다. 북한 연구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북한경제 연구 그룹도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피어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룹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은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진지한 상호평가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IV. 나가며

국책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지금 당장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가장 많이 받는다. 경제 현황 평가는 우리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지나치게 현상을 따라가는 데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종종 든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구조를 파악해야 현상이 의미하는 질서와 그 현상을 만들어 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지금의 북한경제를 작동시키는 질서와 동인을 잘 찾아낼 수 있다면, 북한 체제의 변화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북한 연구의 위기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북한경제 연구의 주제를 보다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김성경, 「통일부 축소는 한반도 ‘분단 인더스트리’ 파괴 선언」, 한겨레, 2023. 8. 16.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 (1956~1964)」,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비교경제연구, 11(1), 2004, pp.139~188.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통일연구원, 2005.
- 김영훈,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 부문 기대효과와 과제」, 통일문제연구, 15(2), 2003, pp.147~169.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44(2), 2005, pp.25~54.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선인, 2004.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3), 2006, pp.7~43.
- 이석기·김석진·김계환·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 방식」, 산업연구원, 2010.
-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